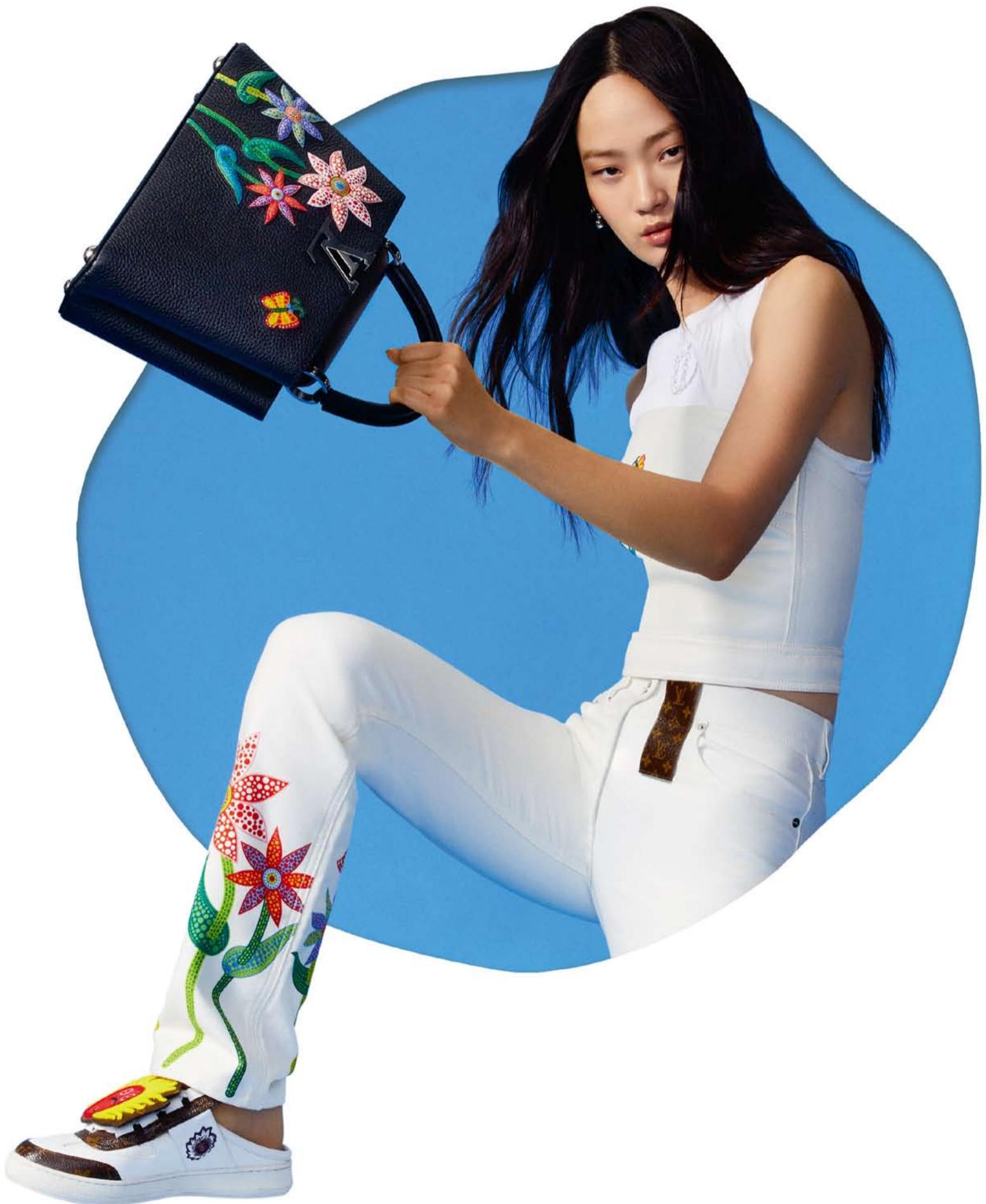


Style

조선일보

APRIL 2023
vol.252



LOUIS VUITTON



AUDEMARS PIGUET

Le Bras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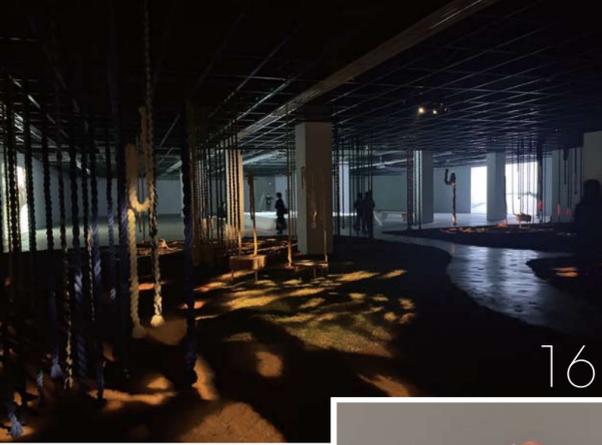
상상 그 너머의 세계

로열 오크
점보 엑스트라신



BOTTEGA VENETA





16



19

Style 조선일보
APRIL 2023
4752

LOUIS VUITTON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미 드림 2 컬렉션의 플라워 테마는 "꽃은 내 그림의 기원이다"라고 선언한 작가의 어린 시절 속 강렬한 환경 세계를 그대로 반영한다. 표지 속 제품은 클래식한 블랙 토끼웅 카프 스킨에 작가가 그린 세 가지 다채로운 꽃과 정교한 나비를 가족 상징새로 기법으로 구현한 LV x YK 카푸신 BB로 유아형에 개성을 더했다. 문의 02-3432-1854



28

- 16 **부드럽게 피동하는 이야기** 지난 4월 6일 개막과 함께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94일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로 노자(도덕경)의 유약수(柔弱者水)에서 차용했다. 개인과 공동체에 주목하며 탈중심적, 초국가적 균형을 모색하는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32개국 79명 작가의 작품 3백여 점이 소개된다.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과 4개의 외부 공간(국립광주박물관, 호랑기사나무 이트폴리곤, 무각사, 예술공간 집)에서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미디어(소주제)를 주요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 18 **그럼에도 비엔날레가 우리 삶에 선사할 수 있는 것** 2천년째 이어져오는 미술제를 뜻하는 비엔날레(biennale)의 역사는 1895년 베니스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새로운 비엔날레가 많이 생겨났고, 광주비엔날레도 이 시기에 등장했다(1995년, 벌써 14회를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존재감은 정말로 아시아를 대표하기에 충분할까?)
- 19 **일상으로 들어온 고미술** 유물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유희준 교수는 최근 강의에서 '김아름루, 화이불채(김소하)만 누추해 보이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유명한 표현으로 우리의 옛것을 설명했는데, <삼국사기>에 나온 이 문장만으로도 알 수 있듯 사실 우리의 고미술품 중에는 미와 쓰임새를 두루 갖춘, 현대성이 깃든 것이 많다. 누추하지 않고 김소한, 사치스럽지 않지만 다재일능이 유려한 우리의 앤트릭와 고미술품은 어디에 있을까, 궁극해하던 차에 우리 고미술의 아름다움을 일러는 2023 라라페어(2023 LaLa Fair : Living Antique & Living Art)가 열렸다.
- 20 **혁신과 스타일 그리고 장인 정신** 루이 비통과 쿠사마 아요미가 함께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배일을 벗었다. 작가의 상징적인 도트 문양을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첫 번째 캠페인은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모티브를 통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 24 **SHINING MOMENT** 특별한 반짝임의 기억, 다이아몬드.
- 26 **HAUTE HERITAGE**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파넬 하우스의 아이코닉함을 그대로 담은 워치.
- 27 **THE ART OF GOLD** 1929년에 창립해 90년 이상의 깊은 전통을 지닌 주대복(CHOW TAI FOOK), 최고의 퀄리티를 갖춘 귀금속을 선별하고 장인 정신과 전통 세공법으로 혁신적인 주얼리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통과 혁신, 그리고 현대적인 창조와 재해석을 지향하는 주대복의 여정.
- 28 **BAG TO YOU** 참을 수 없는 유혹, 2023 봄여름 잇백 컬렉션.
- 36 **2023 S/S ESSENTIALS** 올 상반기,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줄 2023 S/S 백 & 슈즈 셀렉션.
- 40 **VIVA, VIVID!** 액세서리 하나만 잘 고르면 올해의 컬러 바바 마네펀타를 세련되게 매치할 수 있다.
- 41 **ART OF SCIENCE** 과학, 예술, 사람의 가치에 기반한 '아트 오브 사이언스 스킨케어(Art of Science Skincare)'를 내세우는 일본 뷰티 브랜드 폴라(POLA)를 소개한다.
- 42 **EDITOR'S PICK** 편집부가 엄선한 13개의 뷰티템으로 최적의 피부 솔루션을 제시한다.



12



Belle Époque Reel collection

Style 조선일보

Issue.252 April 2023

TASTE the Italian EXCELLENCE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장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 권신비 분해, 재판 | 리은 인세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자나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각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동성현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사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DAMIANI.COM

ANDY NAIL

기본 전원이 필요할 때, 손끝에 상쾌함을 더해줄 디어로운 내일을 만나보자. (왼쪽부터 차례로) **샤넬 로 베르니 967 워터젤**, 샤넬 2023 S/S 메이크업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인, 코랄 베이스에 핑크를 가미한 컬러. 섬세한 핑으로 고르게 발리며, 산뜻하게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13ml 3만8천원. 문의 080-805-9638, chanel.com
구찌 뷰티 베르니 아 옴글 402 벨리 핀 무사아 스텔성 레일 라프로 광택감과 발색력이 우수하다. 핑크 베이스에 파도를 더해 오묘한 매력이 돋보이는 무사아 컬러 10ml 4만2천원. 문의 080-850-0708 **디올 베르니 742 시스터후드** 젤 네일러림 메이크업과 광택 광택감을 연출할 수 있다. 자연 섹션의 자외선 피스피치오 추출물을 함유해 손톱을 보호한다. 10ml 3만9천원. 문의 080-342-9500 포토그래퍼 **김사윤** 인턴 에디터 **신정임**



우아함의 미학

화이트 주얼리를 향한 반클리프 아펠의 취향이 고스란히 깃든 플로레트 컬렉션. 1920년대부터 반클리프 아펠의 피스에 등장한 플로레트 모티프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라다의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피스로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냈다. 7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모티브를 새롭게 해석해 빛나는 화환으로 표현했고, 소재는 깨끗한 느낌을 전하는 화이트 골드를 선택해 컬렉션의 작품들을 우아한 무드로 완성했다. 모든 피스는 마치 꽃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며, 입체적이고 아름다운 실루엣을 연출한다. 문의 1877-4128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PARISIEN VIBE

여유롭고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멋의 대명사로 손꼽히는 파리지엔 룩을 완성하고 싶다면 이 백에 주목할 것. 지방시가 2023 S/S 컬렉션에서 선보인 새로운 부이유(Voyou) 백.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매튜 M. 윌리엄스(Matthew M. Williams)가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아 디렉팅한 부이유는 프렌치와 아메리칸 스타일 코드를 섞은 디자인으로 이번 컬렉션에서 마스트 해브 액세서리로 주목받았다. 캐주얼한 V자형 디자인은 여유로운 파리 남부의 세련미에서 영감받았으며, 바이커를 연상시키는 디테일로 쿨한 캘리포니아 무드를 믹스해 어떤 룩에도 자연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 슬더와 크로스 보드로도 착용 가능하며 블랙부터 그린, 핑크까지 다양한 컬러로 고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문의 02-546-2790



IMMORTAL PETAL

꽃 피는 계절에 걸맞은 플라워 세이프의 위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소피드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소재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한 송이 눈부신 꽃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무문색 오픈 다이얼이 돋보이는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한 워치 19,990원 35만원. 문의 02-6905-3390 **부세른 새봄 보컬** 다이아몬드 베젤을 둘러싼 생생한 비즈가 꽃을 형상화한 듯한 느낌을 주며, 양쪽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화이트 메타우퍼블 다이얼에 4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뤄진 마커를 완성한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 워치 8만9천원. 문의 02-3213-2246 **반클리프 아펠 스위트 알반과** 네 인 클로버 모티브로 시대를 완성한 향연의 아이코닉으로 자리 잡은 알반과 컬렉션의 워치. 18K 옐로 골드 소재에 기호세 다이얼과 블루 컬러의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룩에 포인트를 준다. 1천2백만원. 문의 1877-4128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신정임**



한국의 최고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나라를 펼쳐는 데 보탬이 될 만한 또 다른 플랫폼이 최근 탄생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 펜다가 명성 높은 체임버 오케스트라 세종솔로이스츠(Sejong Soloists)와 공동 주관하는 "펜디 음악상(FENDI Music Award)"이다. 코로나 시대에 음악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펜디 르네상스 - 아나미 문디(FENDI Renaissance - Anima Mundi)'에서 비롯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된 이 음악상 프로젝트는 매해 한국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가를 1명씩 선정해 지원한다. 클래식 음악계 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하고,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인 얀 판 츠베덴(Jaan Van Zweden)이 이끄는 심사위원단이 몇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펜디 음악상 첫 수상자로는 첼리스트 최하영이 선정됐다. 2022 권 일보지배스 국제 콩쿠르 첼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8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제3회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 국제 첼로 콩쿠르에서 1등과 특별상 2개를 거머쥔 이었다. 펜디 음악상 심사위원장 최배원은 "최하영은 타고난 재능이 돋보이는 뛰어난 첼리스트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솔로리스트로 거듭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그녀는 음악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한국 음악 인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했다.

FENDI MUSIC AWARD

NEW WAY, NEW COLOR

애를 워치가 에르메스와 함께 또 다른 컬러를 입었다. 이번 시즌에는 승마의 활기찬 에-자와 기수가 착용하는 조끼(casaque)의 다채로운 컬러 블록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스트랩을 출시한다. 네 가지 컬러로 이뤄진 나옴론 워킹 실용 투어 스트랩과 여섯 가지 컬러의 대조가 돋보이는 스윙퍼트 카프 스킨 소재 더블 투어 스트랩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롭게 추가된 로즈 아젤레(Rose Azalée) 컬러와 베르 밤부(Vert Bambou) 컬러는 클래식 스트랩과 아틀라주(Atelage) 스트랩을 보다 돋보이게 한다. 이외에도 키링 버전의 애를 에-자부터 에어팟 케이스까지, 다양한 액세서리를 선보여 애를 이용자들을 더욱 즐겁게 한다. 올봄 애를 기기에 새로움을 더해줄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문의 02-542-66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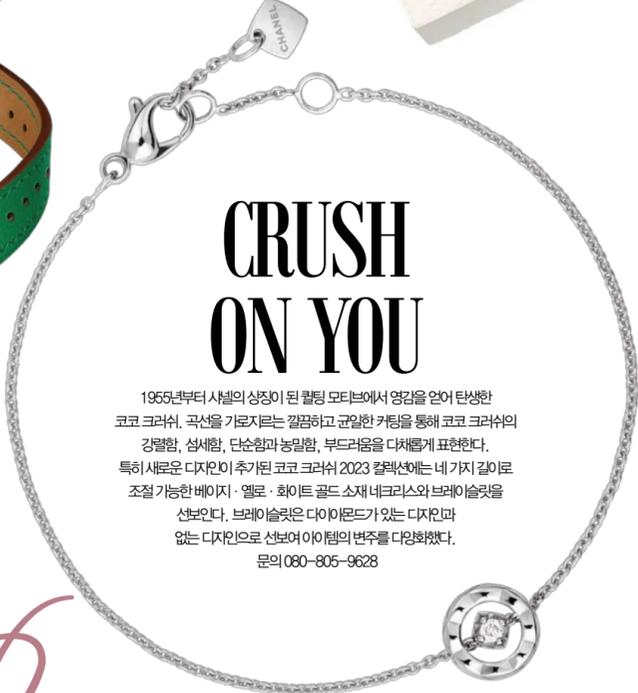
남자의 시간

오데마 피게 라 로열 오크 오프쇼어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했다. 오프쇼어 컬렉션은 1999년 아널드 슈워제너거와의 협업을 통해 출시한 후 각계각층 유명 인사와의 한정 시리즈 제작으로 이어진 메종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이다. 올해 탄생 30주년을 맞아 5백 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이며,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43mm 케이스의 대범한 사이즈를 자랑한다. 또 워치 전체를 블랙 세라믹 소재로 제작해 모던함과 고유의 시크함을 전하며, 타타는 소재의 스트러프와 푸시 피스, 케이스 백과 같은 장식 요소를 더했다. 이와 같은 소재의 선택 덕분에 커다란 크임에도 전체 무게는 단 103g에 불과한 가볍고 인체 공학적인 시계가 탄생했다. 문의 contact.korea@audemarspiguat.com



은은하게, 요즘 비누

강력한 세척력은 물론, 독보적인 향까지 더한 비누 3. (위부터) **오자신 유니버설 블리 사봉 수제비누** 바다 잔물 비누로 감귤-루 향을 더해 산뜻하고 은은한 향이 오랫동안 남는다. 150g 4만8천원. 문의 031-688-5551 **로아레 세봉 푸유 로 비비비** 자은 속성 과장을 거침없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거품이 특징인 플랜징 솜 100g 1만4천원. 문의 02-310-5025 **딤타르 도 손아로 콜레안 도 손아로 비누** 해변에서 돌아오는 비취비림과 상쾌한 꽃향기가 유려하며, 보습한 미꾸라지가 특징이다. 50g 2개 8만3천원. 문의 02-3479-6049 **토양레 페이퍼 비누** **페이퍼 솜 비즈** 왁스와 티트리 성분은 맑은 자자극성 비누로 투베르즈, 스위트 이몬드, 로즈베리 등 세 가지 향으로 구성된 솜 키트 50g 3개 4만3천원. 문의 1644-4490 포토그래퍼 **박재용** 인턴 에디터 **신정임**



CRUSH ON YOU

1955년부터 샤넬의 상징이 된 칼린 모티브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코코 크리쉬. 곡선을 가로지르는 깔끔하고 균일한 카틴을 통해 코코 크리쉬의 강렬함, 섬세함, 단순함과 농밀함, 부드러움을 다채롭게 표현한다. 특히 새로운 디자인이 추가된 코코 크리쉬 2023 컬렉션에는 네 가지 길이로 조절 가능한 베이지·옐로·화이트 골드 소재 네크리스와 브레이슬릿을 선보인다. 브레이슬릿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디자인과 없는 디자인으로 선보여 아이 템의 변화를 다양화했다. 문의 080-805-9628

BILLIANT VOLUME

로이 비통 주얼리 아티스트 디렉터 프란체스카 인피시트르프가 추상적 예술 향에서 영감받아 탄생시킨 LV 볼트 컬렉션을 소개한다. L과 V 모티브가 조화를 이뤄 건축적 디자인을 완성하고, 고유의 실루엣이 누구든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공통 단위를 표현한다. 특히 LV 볼트 원반의 대담한 스타일이 눈길을 이끈다. 18K 옐로 골드 총 0.18카트의 49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감각적이고 볼드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독특하고 활기찬 리듬감을 자아내는 그래픽한 라인과 조각적인 볼륨감이 특징이며, 단독으로 착용해도 감각적인 포인트가 될 것. 1천1백60만원. 문의 02-3432-1854





파스텔 느낌의 파플 칼라에 로고 패턴 디테일을 더한 램스킨 소재의 벨트 백 쿠션. 13X11X8cm, 3백만원대 루이비통.

사이드 로고 플레이가 포인트를 더하는 맥퀸 그래픽티 슬래시 선글라스 가격 알렉산더 맥퀸.

18K 화이트 골드™ 소재 반지는 자유로운 패턴을 위한 루이비통의 자상상반반을 기념하며.

핑크 골드 소재에 0.23캐럿 다이아몬드와 로즈 모양의 에미스트로 완성한 로즈 디올 프리 카탈란 아이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새틴 소재에 백사 매를 달았이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버블 '보타가 베네다' 슈즈 70만원 토토.

체크 패턴이 시크스러운 매력을 보여주는 올 100% 니트 카디건 가격 미정 이브네 스튜디오.

for her Selection

이번 스프링 시즌, 트렌디한 룩을 완성하는 데 빼놓아서는 안 될 컬러, 라일락을 닮은 퍼플과 스카이 블루. photographed by kim sa yoon



스틸 소재에 묘한 매력을 선사하는 딥 퍼플 컬러 다이얼이 돋보이는 아쿠아 테라 150M 코-엑스칼 미스터 크로노미터 34MM 8백만원대 오메가.



프린세스 바네트 것으로 반짝임을 극대화한 크리스탈이 포인트인 메타닉스 후프 아이링 200만원 신바네트스키.



파플 칼라에 중앙 로고로 영한 느낌을 부여해 가장 있는 룩을 연출해줄 버킷 햇 54만원 몽클레르.



데님처럼 보이도록 램스킨에 프린트한 독특한 소재의 보이프렌드 핏 데님 7백만원대 보타가 베네다.



신발함을 좋아하는 파플 컬러의 카프스킨 소재 메리제인 슈즈 가격 미정 샤넬.



스카이 블루 컬러 나일론 소재에 베이직 스카족 디테일을 더한 르 플리아유 리틀레이 벨트 14만원 천원 몽삼.



부드러운 양가죽에 다양한 디테일을 더해 스포티한 감성을 전하는 문백, 7.5X16X22.5cm, 3백45만원 프라다.



독특한 질감을 선사하는 스웨이드 소재의 파플 컬러 슬리브리스 셔츠 가격 미정 샵비토레 신드로.

루이비통 02-3432-1854 알렉산더 맥퀸 02-6105-2226 디올 파인주얼리 02-3260-0104 타사키 02-3461-5558 이브네 스튜디오 02-542-2290 토토 02-3438-6008 오메가 02-6905-3301 소외로브스키 02-1522-9065 몽클레르 0030-8321-0794 보타가 베네다 02-3438-7682 부세론 02-772-3508 샤넬 080-805-9628 샵비토레 신드로 +39 081-752-4807 몽삼 02-513-2288 프라다 02-3443-6047

Objects for Interior life HERMÈS PARIS



Armchair in hand-painted papier mâché.



for him Selection

스프링 시즌 맨즈 룩을 완성하는 컬러, 그립과 오렌지를 기억할 것. photographed by kim sa yoon

한터 스키족 소재의 에르메스 시계 39, 39x32cm, 새틴인피니티 에르메스.
 다이얼과 라바 스트랩의 오렌지 컬러로 목에 포인트가 될 슈파오션 오토매틱 36 6백40만원 브라이틀링.

18K 골드 소재에 알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포인트를 준 세르펜티 바이퍼링 7백90만원 불가리.

올 시즌 가장 큰 대안으로 부상한 데이는 그린 컬러를 기본 컬러로 1백80만원 구찌.

프로 스포츠계급 디자인에 걸맞은 핏과 프로 스포츠가 컨셉인 토즈

근교 여행 시 가볍고 스타일리시한 패권을 도와줄 해비 그레인 소재의 시티 워켄더. 46x28x22cm, 2백35만원 말버러.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슈즈인 에트 그린 레더 스티 & 힐링 화이트 나피 레더 플스터 스니커즈 기반의 편안한 굽은 쿠스.

내온 조절이 가능한 베이스 코팅이 로코 스타의 거머링 인피니티이다.

그레인 레더 소재의 로빈 홀 그레인 가죽 드레스 벨트 가격 미정 홀로 힐프 로빈.

Acne Studios

엘로 칼라에 캐주얼 아이 세이밍의 프라임이 인상적인 코퍼 YC7 32만원 쉐넬 몬스터.

실바에 알라카이트 포인트를 다한 인라인 레이저 핏짜 가격 미정 스티븐 헵스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바게트 백을 그대로 재현한 100% 카이민 가죽의 참. 6.5x5.5x3cm, 1백만원 데 렌디.

프린트드 엘라카이트 레더 소재에 태슬 디테일을 가미해 드레스업한 느낌을 부여하는 로퍼 2백48만원 톱 포드.

에르메스 02-542-6822 로코아이나 02-6200-7799 구찌 02-3452-1521 불가리 02-2066-0170 브라이틀링 02-792-4371 토즈 02-3438-6008 말버러 02-2018-1439 굽문구스 02-519-2938 홀로 힐프 로빈 02-6004-0220 쉐넬 몬스터 1600-2126 코치 080-888-1941 아크네 스튜디오 02-542-2290 톱 포드 02-6905-3534 스티븐 헵스터 02-2231-1592 렌디 02-544-1925

브랜즈 로고 자수 디테일이 매력적인 코튼 소재 시그처 콜러 셔츠 가격 미정 코치.

My Persona The Touareg

플래그십 SUV 투아렉은 눈길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외관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운전자에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와 편안한 승차감을 위한 첨단 테크놀로지까지 과시하지 않아도 존재감이 드러나는 당신처럼, 투아렉



온 & 오프 로드를 아우르는 편안한 승차감 | 4륜 조향으로 경험하는 탁월한 주행 편의성 |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지능형 제어 기능
에어 서스펜션 | **올 휠 스티어링** | **IQ.라이트**

가까운 전시장에서 투아렉을 경험해보세요.

[전시장]
 강남 대치 02-564-9800 강남 신사(City store) 02-516-0033 강북 미아 02-320-9630 통대문 02-2241-8888 목동 02-3660-9999 용산 한강대로 02-595-0070 서초 02-588-3434 송파 02-6958-0800 한남(City store) 02-747-4300 부천 032-671-4700 분당 031-760-1800 수원 031-284-3030 구리 031-563-2292 안양 031-396-0801 일산 031-904-4400 판교 031-696-0100 인천 032-471-6100 원주 033-737-6500 춘천 033-244-6400 청안 041-573-9993 청주 043-223-9944 대전 042-862-9944 전주 063-213-9500 순천 061-727-2345 광주 062-351-9500 대구 053-767-1900 남천 051-611-5500 동래 051-926-5500 해운대 051-995-5500 창원 055-245-7788 포항 054-249-5000 제주 064-744-9200

[차종 및 표준 연비]
 Touareg 3.0 TDI Premium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Touareg 3.0 TDI Prestige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Touareg 3.0 TDI R-Line (8단 자동,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2,271kg, 복합 CO₂ 배출량 180g/km 복합연비 10.8km/l (도심 연비 9.6km/l, 고속도로 연비 12.8km/l), 4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에어 서스펜션과 올 휠 스티어링 기능의 경우 투아렉 3.0 TDI Prestige, R-Line 트림에만 적용 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실제 판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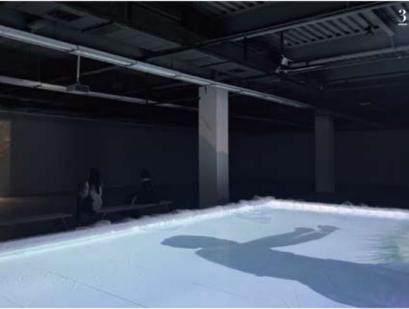


volkswagen.co.kr

2023 광주비엔날레 부드럽게 파동하는 이야기들

• 제 14회 • 광주비엔날레 •
• 14TH • GWANGJU • BIENNALE •
• 2023 • 4.7 ~ 7.9 •

물처럼 Soft and Weak 부드럽고 like Water 여리게



#파동의 시작
전시관 진입부를 따라 들어서면 어두운 바닥의 흙 사이로 오솔길이 나 있다. 부드러운 실을 엮어 만든 밧줄과 나무 등치에 서린 은은한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제의적 노래 부르기에 가까운 사운드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여성들의 영상을 마주하게 된다. 불레베즈웨 시와니(Buhlebezwe Siwani)가 꾸민 이 공간은 인류 역사의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된 '어머니 자연', '어머니 여신의 믿음을 떠올리게 한다. 요하네스버그 출생으로 전통적인 치유자 '상고'로 훈련받기도 한 작가는 아프리카 신화와 현실을 중심으로 영혼과 영적인 것에 관한 작품을 만들어왔다. 장소 특정적 설치 바침은 초자연적 존재가 깃든 신비로운 대자연을 구현한다. 3채널 영상 작업 <영혼 강림>은 이러한 존재들을 상상하며 현 사회 속 흑인의 몸을 다각적으로 비춘다. 특히 수조 아래 설치된 영상은 노예무역 중 수장된 수많은 아프

지난 4월 6일 개막식과 함께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94일에 걸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soft and weak like water)로 노자 <도덕경>의 '유약어수(柔弱者水)'에서 차용했다. 부드럽고 약하며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바위를 뚫고 선행으로 모든 것을 정화하는 물! 이숙경 예술감독은 전환과 회복, 포용이라는 물의 속성을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예술의 힘으로 은유한다고 밝혔다. '물'의 비물질성을 역사적 장소 '광주의 정신과 공명하고, 전 지구적 시점에서 현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이슈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에 주목하며 탈중심적, 초국가적 균형을 모색하는 전시에서는 다양한 세대와 문화적 배경, 지역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32개국 79명 작가의 작품 3백여 점이 소개된다.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과 4개의 외부 공간(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무각사, 예술공간 집)에서 상호작용하는 네 가지 마디(소주제)를 주요 작품을 통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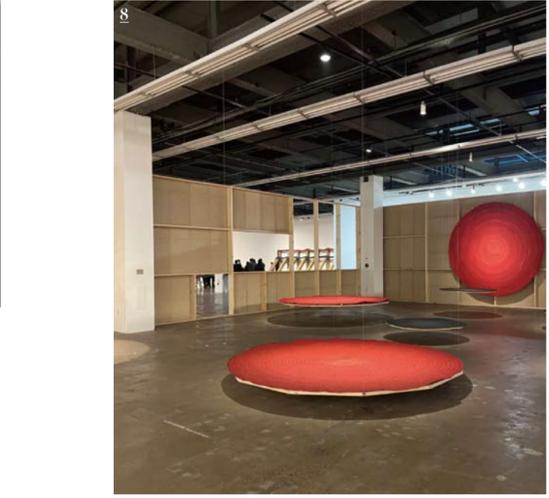
리카인을 떠올리게 하는데, 한 무리의 여성이 해안가에서 제의의 형태를 행할 때 그 울림은 배가되는 듯하다. 두 작품은 대지와 물, 인간과 자연, 소환과 회복의 다층적 이야기를 영적인 틀로 묶어낸다. '들어서머' 공간에 펼쳐진 두 작품의 풍부한 시각적 단서는 비엔날레가 아우르는 네 가지 소주제로 파동한다.

#광주 정신의 확장된 외연: 은은한 광륜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지점에 위치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민주화를 위한 세계 각지의 저항 운동과 궤를 같이한다. 두 번째 마디는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 정의에 대한 갈망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이해하고, 다양한 장소와 사회에서 발견되는 저항의 현상과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으로 구성된다. 영상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타이키 사프시(Taiki Sakpisi)는 태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에서 반복되는 트라우마와 폭력을 영상 기록과 소리로 조합한다. 2채널 영상 <스피릿 레벨>(2023)은 매공장 유역을 가로질렀던 여행의 경험에서 출발해 지하 동굴, 도살장, 영매와 같은 장소, 대상을 하나의 시각적 서사로 연결한다. 물과 재생의 상징이기도 한 뱀의 여신 나가가 거주한다는 지하 동굴, 폭력적인 죽음이 남긴 부패의 흔적, 마비된 듯한 시간과 영혼은 그



가 기록하는 삶이자 공동체의 보편적 고통으로, 삭피시오 오랜 기간 협력해온 모리나가 야스히로(Yasuhiro Morinaga)가 디자인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증폭된다. 마우고르자타 미르가-타스(Malgorzata Mirga-Tas)는 일상적 재료와 주변에서 발견되는 도상을 사용하여 로마니(Romani) 공동체와 문화를 조명한다. 과거 '집사라 불리며 홀로코스트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로마인들은 수 세기 동안 차별과 폭력, 박해를 경험하고 있다. 로마계 베르티타족 출신이며 2022년 로마 작가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폴란드 파빌리온을 대표한 미르가-타스는 자신의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기증받은 흰 옷감을 활용한다. 작년 베니스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에 이어 올해 광주비엔날레에서도 소개되는 작품 설치 작업은 옷감 고유의 다채로운 패턴과 색감을 배경으로 로마인들의 초상과 문화의 면면을 보여준다. 옷감의 재활용은 쓰임이 다한 재료를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다. 또한 천조각을 바느질로 이어 밀그림을 그린 뒤 작품으로 완성하는 방식은 소외되고 조각난 존재들을 문화 공동체로 결속시키기 위한 민족지학적 접근처럼 여겨져 흥미롭다.

#전통이라는 가치: 조상의 목소리
근대화와 식민의 역사는 전통을 비이성·비합리성의 영역



1 광주비엔날레 본전시관의 사자를 일리는 불레베즈웨 시와니의 장소특정적 설치 바침(2023). 2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시나지 - 물의 혼인함과 밀라가는 과정을 형상화한 타이포그래피를 위에 얹어 유영하게 확산되는 먹의 특성을 모티브로 한다. 3 시와니의 3채널 영상 <영혼 강림(2022)>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은 자연 곳곳에 깃든 영들을 호출하는 영적 매개체다. 4 일리자 나신비움은 광주 지역 놀이매 '신령과 합업, 5.18로 상상의 이름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 리허설 장면을 회복에 담았다. 배우와 그들이 연기하는 인물의 중심은 개인과 집단의 사사(7)의 초상이다. '신령, '어는 불날', 드레스 리허설(2022), 작가 - 뉴욕 인턴 컨 갤러리 제공. 사진: 토마스 바넷. © 일리자 나신비움 5 타이키 사프시, '스피릿 레벨(2023) (영상 스틸). 제 14회 광주비엔날레 카피션, 양반재단 · SAC 갤러리 후원, 작가 제공 6 노에 마르티네스, '송이 3(2022), 작가 ·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7 아서 자파는 오랜 친구이자 공동 작업자였던 그레고 테이트를 'Absolute Love of My Life'라 칭했다. 테이트의 죽음이라는 대상의 부재를 소리와 이미지를 통한 공간상과 시간상의 교차로 애도한다. 아서 자파, LOML(2022) (영상 스틸), 작가 - 글렌드스트 갤러리 제공 8 아자수 일로로 만든 매트들 위에 수피교 사구가 적혀 있다. 전통적인 공예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 작업 연혁은 아부다비 사회봉사단체 여성들과의 협업으로 완성되었다. 차이 지웨이, '사편, 상지, 모스크, 교회' (2022), 설치 전경 9 로버트 자오 런웨이, '강을 기억하고자 함(2022) (영상 스틸),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카피션 · 싱가포르 예술위원회 후원, 작가 · 베이징샹아트 갤러리 제공 10 아미존 주변 여러 강들을 유영하는 '은천'으로 만기 아미존 환상을 의미하는 카메라를 영상사(카)는 신화적 존재는 인간과 비인간 세계의 공존을 보여준다. 애들리아 스타놀라티, '101큐알리아(2023), 설치 전경 11 모리 유코의 VO(2011~2023), 설치 모습. ※아미지 제로 광주비엔날레 ※1, 3, 5, 7, 10~11 photo by JY Kim



으로 내몰았다. 조상의 목소리로 은유되는 세 번째 마디는 다양한 지역에서 개체와 인식이 가해된 식민주의적 폭력의 역사를 소환하고, 전통을 과거, 현재, 미래와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실천의 가능성으로 제시한다. 멕시코시티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노에 마르티네스(Noé Martínez)는 식민지 역사와 사라져가는 선주민 문화에 주목한다. 메소아메리카와 스테이크(Huastec) 민족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선대의 유물에서 영감을 받은 도예 작업으로 흑독한 침략 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희생된 선조들의 몸을 은유한다. 신체의 일부나 전체를 빛은 토우를 한데 모은 '송이 3(2022)과 11점의 도예 조각 '내 몸은 모자이고, 내 길은 기념비이다(2022)라는 작품은 프리뷰 당시 작가가 직접 펼친 퍼포먼스를 통해 마치 영적인 울림으로 확장되는 듯했다. 발목을 묶은 타악기와 '내 몸은 선조들의 기억이라 외치는 작가의 목소리는 개인의 삶 속에 흐르는 역사와 영혼을 일치시켜 공감하고 치유하는 '제의적 호출이다. 차이 지웨이(Charwei Tsai)는 천연 재료로 포함한 소재에 만트라를 적는 수행적 행위와 전통적 공예 기법을 이용한 2점의 설치 연작을 소개했다. <반아심경>의 구절들이 새겨진 3개의 나선형 향은 향을 피우면 사라지는 데, 이는 형태와 비움의 상호 의존성,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삶과 죽음의 순환을 나타낸다.

#잠재적 변화의 메아리: 일시적 주권
식민주의 시대에 자행된 다양한 주권 침탈은 동시대 여러 사회·문화·경제적 이슈와 맞닿아 있다. 과거를 침묵시키지 않고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사고와 실천을 제시하는 세 번째 마디에서는 아서 자파(Arthur Jafa)의 영상 작업을 짚어본다. 대중문화와 매체에서 발견한 다양한 맥락의 장면을 병치하고 음악을 더한 영상과 사진, 설치 작업을 선보여온 작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 미디어가 만들어낸 인종에 대한 폭력과 억압에 대한 보편적 신호를 다층위적으로 사유하는 그의 작업은 인종 관계와 문화의 복잡성을 바탕으로 흑인 문화의 특수성과 에너지

를 상기시킨다. 이번 비엔날레에 소개되는 작품은 오랜 친구이자 작가 겸 음악가인 그레고 테이트(1957~2021)에게 바치는 오마주다. 두 작가는 협함과 재즈에서 확장된 흑인 음악의 창의적 표현에 주목하며 오랜 기간 공동 작업했다. 'LOML(2022)은 추상적으로 변동하는 빛과 그림자, 동시 생성되는 2개의 개별 사운드를 다중 중첩시킨 영상 작업이다. 현실을 강렬하게 분출한 이진과 달리 조화로운 불협 화음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리와 이미지는 'Absolute Love of My Life(LOML)의 상실을 애도하는 인간 본연의 감정이자 존재론에 대한 성찰이다.

#공존을 위한 모색: 행성의 시간들
일상의 평범함이란 아직 유효한 것일까. 전쟁이 초래한 에너지 위기, 경기침체, 기후변화, 차별과 불평등,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기술 위험 등 팬데믹으로 유예되었던 다양한 위기는 이제 더욱 빠르게 총출동해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다. 마지막 마디는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행성적 관점에서 주목하며, 실천적 가능성과 다층적 대응을 모색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의 작업을 소개하는 장이다. 로버트 자오 런웨이(Robert Zhao Renhui)는 특정 장소가 함의하는 인간 사회의 서사와 정치적 복선, 그리고 자연이라는 인류세를 벗어난 보편적 공간 사이의 비밀스러운 틈새를 포착한다. '강을 기억하고자 함(2023)은 20세기 초 콘크리트 배수관으로 바뀐 싱가포르의 어느 이름 모를 강의 지류가 품은 삶과 역사를 다룬다. 길면 벼락 예술 지구에 위치한 이 배수관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강 주변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변모되어간다. 5년간의 변화를 기록한 4채널 영상과 강 근처에서 수집한 오브제들은 역사와 환경의 응유를 드러내고 자연의 회복 탄력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개인과 공동체가 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태도를 촉구한다. 본전시관에 펼쳐진 소주제는 외부 전시장과 국가별 파빌리온을 오가며 연결된다. 국립광주박물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무각사, 예술공간 집에서는 공간에 함축된 각기

다른 역사와 맥락에 상응하는 작품들을 전시한다. 1950년대에 건축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은 선교사들이 거주했던 공간으로 이곳의 글라스폴리곤 공간에는 모리 유코(Yuko Mohri)가 조성한 유기적 생태계가 펼쳐진다. 'I/O(2011~2023)는 'Indian Ocean'과 'Input/Output'의 약어로 소설가 한강의 작품 <환>에서 영감받아 기존 작업을 재구성한, 상호작용적 키네틱 조형물이다. 전시장 중앙 목재 천장 구조물로부터 길게 늘어선 종이는 먼지나 습기, 공기의 흐름을 신호로 바꿔 물체들을 움직이게 한다. 펄떡이는 먼지떨이와 벨 리라의 소리, 흰 나비의 날갯짓은 한강의 작품이나 광주의 역사 속에 각인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담담하게 끌어들이는다. 주변 환경과 직접 조우하는 물감감 있는 설치 작업은 여기와 저기의 경계를 허물며 관계의 복원을 시도한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는 의도적으로 분류되고 소거된 집단 의식을 혼성과 다문화의 열린 시작으로 포용한다. 이 불법적 타자 읽기나 거대 담론 다듬기식이 아닌 지구라는 한 행성에 사는 인류로서 균형과 공존을, 연대와 돌봄의 태도를 취하길 권유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회복을 위한 서정적 실천으로의 초대에 가깝다. 글 **김정원** (독립 기획자)





혁신과 스타일 그리고 장인 정신

루이 비통과 쿠사마 야요이가 함께하는 마법,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베일을 벗었다. 작가의 상징적인 도트 문양을 재해석하는 데 중점을 둔 첫 번째 챗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새로운 모티브를 통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다채로운 컬러와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강박과 집착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쿠사마 야요이는 팝아트와 선구자로 꼽히는 전위적인 현대미술가다. 조각과 회화부터 설치, 영화, 사진, 행위 예술, 집필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무수히 많은 기법을 사용해 자신의 관점을 표현해온 그녀가 루이 비통과 손잡고 시그니처

오브제 및 무한함을 담은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난 1월에 공개한 드림 1 컬렉션에서는 본인의 강박적 도트 무늬를 재해석해 루이 비통의 시그니처 가방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일의 가방까지 내놓았다. 이 상징적인 도트는 마치 실제 작가의 손길을 거친 듯 재현되었는데, 도트 패턴을 그린 붓 터치는 실제 작품의 질감과 무게를 그대로 표현하는 놀라운 디테일을 담았으며, 컬렉션의 다양한 오브제는 밀리미터 단위의 측정을 통해 정교하게 마무리해 감탄을 자아냈다.

예술가와의 협업에 있어 새로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루이 비통과 그녀의 첫 만남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쿠사마 야요이는 루이 비통 트렁크에 무한을 상징하는 도트 패턴을 핸드 페인팅했다. 진정성과 새로움에 대한 갈망, 서로에 대한 존중과 평범함을 뛰어넘는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끈끈한 프렌드십은 10년 전 맺었던 대화를 이끌어냈고, 올해 다시 한번 둘을 뭉치게 했다.

그 결과 두 세계를 온전히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컬렉션이 탄생했다. 패션이 패션을 넘어서는 순간, 콧대 높은 아트가 대중을 향하는 순간, 그 접점이 이 둘의 교집합이 되었다. 최상의 퀄리티를 위한 집념은 메종의 상징적인 제품들과 만나 발전했다. 어떻게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며, 또 어떻게 감동시키고 변화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 즉 무한함과 영원함을 위한 어떻게에 대한 고민과 집념은 그녀가 예술에서도 그러했던 장인 정신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기본으로 상업적인 제품에 공예적 터치를 더해 성공적으로 완성되었다. 가방은 물론 남성복 및 여성복, 선글라스, 슈즈, 액세서리, 트렁크, 향수 등 남성과 여성 세계를 다 포괄하는 이 광범위하고 복잡한 컬렉션이 지난 3월 드림 2를 공개했다. 주요 모티브는 호박, 꽃, 얼굴 그리고 인피니티 도트와 네트다. 에디터 장민우

1, 3, 4 작가의 실제 스케치를 수직업으로 구현한 드림 2의 꽃과 얼굴 모티브. 2 컬러의 마술사로 불리는 팝아트 작가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아이덴티티 모티브, 호박

호박은 쿠사마 야요이에게 의미 있고 위로가 되는 모티프로 오랫동안 다뤄온 소재 중 하나이며 부적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나는 호박의 너그럽고 가식 없는 모습, 이 매력적이고 매력적인 형태에 목 빠져 있다고 자서전 인피니티 넷(Infinity Net)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호박 컬렉션을 위해 루이 비통의 제품들은 가까이 캔버스로 거듭났다. 출저어 겹쳐진 호박 그림을 위해 또는 그 자체로 호박 모양을 구현하기 위해 최고급 가죽이 사용되었다. 리드미컬한 도트로 완성한 호박의 구불구불한 라인인 워렌드 도트, 트리오 메신저, 카풀 같은 가방뿐 아니라 바킷 모자, 주얼리, 안경 및 의류와 향수에서도 만날 수 있다.



행잇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호라이즌 55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포트 카르트 심플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편킨 숄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필로우 폼포트 몰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카풀 25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편킨 키 홀더 & 백 차임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타임 아웃 스니커즈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편킨 타이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리명사테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편킨 펜던트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야요이

02



플리워 스카어 90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카쉬신 미니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스펠 온 유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어린 시절의 기억, 꽃 & 얼굴

일본 소도시의 목가적인 환경에서 자란 쿠사마 아요이의 부모는 광활한 대지와 온실에서 종묘장을 운영했다. 그녀가 그림을 통해 기록한 생생한 어린 시절의 시각적, 청각적 환각이 주는 충격과 두려움을 완화해준 것이 꽃이다. 작가의 꽃은 바지와 차마, 드레스는 물론이고 카쉬신, 모노그램 앙프렌드 온더고, 스피디 백과 같은 가족 제품과 향수병에도 프린팅되었다. 꽃과 함께 작가가 자주 다루는 소재 중 하나는 얼굴 문양이다. 2009년 시작한 자명한 시리즈인 '나의 영원한 영혼(My Eternal Soul)'의 즐거운 얼굴들은 쿠사마 아요이와 루이 비통에 의해 선택되고 변형되어 이 컬렉션의 독특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이 모티브는 여성과 남성 컬렉션 곳곳에 등장하는데, 브랜드의 시그니처 컬러인 밝은 델파움 블루 바탕의 하이퍼 프린팅과 강렬한 컬러의 자수 조합으로 만날 수 있다.



임브로이더드 페이스 바사티 블루종과 카를 50
모두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LV 트레어너 스니커즈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라버셔블 페이스 버킷햇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03



온더고 PM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멀티 포켓 백팩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앞) 토일레트리 파우치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뒤) 토일레트리 파우치용 체인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페이스 밍도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나노 노에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대님 핑킨 캡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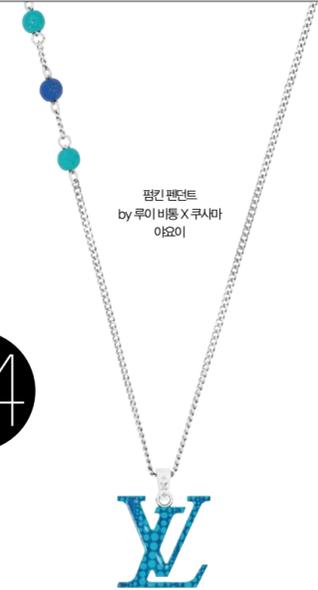


04

이-셀스 라버셔블 벨트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핑킨 팬던트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왼쪽) 인피니티 도트 집업 드레스, 스피디 반들라에 20, 아카데미 로퍼 모두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오른쪽) 라버셔블 인피니티 도트 버킷햇, 인피니티 도트 집업 재킷, 내버블 MM 모두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락 잇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대님 핑킨 스카프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집착과 반복의 상징, 인피니티 도트 & 네트

드름 2 컬렉션에서 인피니티 도트는 블랙 & 푸쿠사, 스카이 블루 & 화이트, 화이트 & 레드 컬러를 추가했다. 온더고, 내버블, 포세트 메티스 같은 여성 가죽 제품은 물론이고 라버셔블 버킷 모자와 실크 아쿠 모자, 사민로드, 슈즈 등에도 반영되어 선택의 폭이 넓다. 반복적이고, 강박적이면서도 특유의 리듬감으로 보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인피니티 네트는 현재 쿠사마 아요이의 가장 인기 있는 작품 중 하나다. 1969년 뉴욕 미술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피니티 네트가 패션 세계로 들어왔다. 피린색과 검은색, 푸쿠사아 바탕 위 흰색을 사용한 인피니티 네트 문양이 카쉬신 백을 감싸는데, 섬세함과 강렬함이 특징이다.



05

(왼쪽) 카쉬신 MM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오른쪽) 카쉬신 BB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클래쉬 핑킨 선글라스
by 루이 비통 X 쿠사마 아요이



shining Moment

가장 강렬한 반짝임의 기억, 다이아몬드.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우부터 차례대로) **그라프 외일드 콜라워 파베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4개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꽃 모티브가 자리한 알은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여성스러운 무드를 선사한다. 1천4백43만원. 문의 02-2256-6810 **포털라 토 누도 브레이슬릿** 앙 글에 컬렉션의 시그니처 모티브를 액세서리에 모던하면서도 포인트를 주는 브레이슬릿으로, 18K 로듐 플래티넘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10.67캐럿 2개의 화이트 토파즈와 총 1.39캐럿 6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5-3342 **소피드 솔라테어 링** 플래티넘 밴드에 센터 스톤 다이아몬드 앙 글으로 2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전하는 솔라테어 링 1억1천3백43만원. 문의 02-6905-3390 **반클리프 아펠 빅토리 다이아몬드 링 3개 라인** 여성스럽고 유쾌한 감성을 선사하는 상세한 골드 비즈의 아름다움이 특징인 빅토리 링 중 가장 볼드한 스타일로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3개 라인으로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타파니 타파니 다이아몬드 링** 플래티넘 밴드에 놀림도록 섬세하게 카팅한 페어 세트프 다이아몬드를 센터 스톤으로 배치해 다이아몬드의 품위와 광채를 보여주는 솔라테어 스타일의 링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부쉬론 세팅 보렘 솔리 퍼스 m 아이링** 매종의 시그니처인 별의 마리를 상징하는 드롭 모티브의 세팅 보렘 컬렉션 아이링. 특유의 골드 비즈를 세팅해 보헤미안적인 볼륨감을 표현했으며, 가운데에 30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3213-2246 **프래드 포스텐 네크리스** 브랜드 상징인 포스텐 모티브를 표현한 Y자형 네크리스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17개를 세팅해 눈부신 반짝임과 화려함을 더함과 동시에 모던한 디자인으로 세련된 느낌을 연출해준다. 가격 미정. 문의 070-4732-0479 **사벨 와인 주얼리 코메드 스파이럴 링** 별 모티브가 돋보이는 코메트 컬렉션의 링. 18K 화이트 골드 밴드 2라인으로 볼륨감을 더했으며, 총 0.57캐럿의 39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1천1백60만원.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Haute Heritage

하나쯤은 꼭 소장하고 싶은 패션 하우스의 아이코닉함을 그대로 담은 위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디올 타임피스 라 디미 디올 스틸 세터 지름 25mm의 심플한 스틸 케이스가 고급스러운 맛을 전하며, 다이얼과 브레이슬릿에 새긴 새틴 패턴이 돋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샤넬 워치 J12 워치 칼라버 12.2 지름 33mm 화이트 세라믹과 스틸 케이스, 화이트 다이얼에 화이트 세라믹 카본송을 세팅한 스틸 스크루 다운 크라운이 심플한 맛을 지닌다. 칼라버 12.2를 장착해 하우스의 놀라운 워치메이킹 기술력 또한 보여준다. 1천88만 원, 문의 080-805-9628

롤렉스 N.004 타임피스 라사아를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케이스와 블랙 다이얼이 아우라져 하우스만의 독보적인 시크릿을 드러내며, 다이얼을 더한 스트랩은 워치에 포인트를 주어 개성을 부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6909-3534

구찌 G 타임피스 비 디테일의 스틸 시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별모양 다이얼로 장식한 다이얼이 가장 먼저 눈길을 끈다. 32mm의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세련된 무드를 지니며,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2백21만원, 문의 02-3452-1521

루이 비통 앙투르 슬림 메탈릭 플러워 지름 28mm 스틸 케이스와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모노그램을 새긴 스트랩이 만나 우아하면서도 패셔너블한 무드를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432-1864

에르메스 케이스 코드 2개의 상크레 센 당크로 링크 모양 다이얼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선사하며, 총 0.42g의 46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스틸 케이스와 조화를 이룬다. 퀴츠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42-6622 에디터 윤자경

이진영 촬영

1



The Art of Gold

1929년에 창립해 90년 이상의 전통을 지닌 주대복(CHOW TAI FOOK), 최고의 퀄리티를 갖춘 귀금속을 선별하고 장인 정신과 전통 세공법으로 혁신적인 주얼리 디자인을 선보인다. 전통과 혁신, 그리고 현대적인 창조와 재해석을 지향하는 주대복의 여정은 계속된다.

전통문화를 입힌 현대 주얼리

황금은 고대부터 럭셔리하고 고귀한 가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주대복(CHOW TAI FOOK)은 이토록 귀중한 황금을 전통적인 세공법을 통해 유려하고도 다채로운 주얼리로 탄생시킨다. 이번에 선보인 주대복의 CTF·HUA 컬렉션은 새로운 미학과 승화된 전통문화를 융합해 젊은 감각을 지닌 신세대에 게 황금의 또 다른 매력에 대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컬렉션의 모든 아이템에 고전적인 상징, 토텐, 문화를 담은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는 것. 이를테면 전통적으로 길상을 상징하는 여의 장식, 부를 상징하는 옛 화폐 원보, 재물을 삼키고 뱉지 않아 부를 축적하는 비휴, 행복과 번영의 상징인 나비와 호리병 등을 순금 주얼리로 재해석해 전통적인 황금 공예와 현대적인 디자인의 관점으로 차세대 패션 주얼리를 소개한다. 또 정밀하고도 주대복만의 아이코닉한 모티프를 담은 CTF·HUA 컬렉션은 누구에게나, 어떤 룩에나 패션 아이템으로서 역할을 다한다. 매우 세심하게 조각된 주얼리를 선보이는 주대복은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진정성과 영원성을 바탕으로, 당시의 모든 중요한 인생 모먼트에서 베스트 아이템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에디터 윤자경

1 전통문화를 입힌 현대 주얼리, 주대복의 CTF·HUA 컬렉션. 2, 3 수작업을 통해 상세하게 제작되는 주대복의 주얼리. 4 금을 상징하는 원호와 비휴 디자인을 영감 받은 황금에 새겨진 심플하면서도 멋스러운 문양이다. (위부터 차례대로) 24K 순금 999 원호와 부 병금 팔찌, 해티지 병금 팔찌, 번영 비휴 병금 팔찌



코튼 소재의 오렌지 컬러
블라우스와 스카프, 가죽 소재의
오렌지 컬러 미니 백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옐로 컬러의
파세오 스티를 백 가격 미정 **로에베**,
핑크 컬러의 벨루 1947 스티를
폼 핸들 백 6백30만원 구찌.



BAG TO YOU

참을 수 없는 유혹,
2023 봄여름 잇 백 컬렉션.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가죽 소재의 그린 컬러 드레스
가격 미정, 가죽 소재의 그린 컬러 스티를
폼 핸들 잇 백 4백50만원, 가죽 소재의
네이비 컬러 폼 핸들 잇 백 모노크롬 백
가격 미정 모두 **로에베**, 송이 가죽
소재의 핑크 컬러 V 로고 타인 백
3백10만원 **발렌티노** 가브리엘라.

옐로 칼라의 자수 장식 드레이
타입은 울 코트 9백70만원 **발렌티노**,
가족 소재의 퍼플 칼라 그랑 바비에,
소크 미니백 2백67만원 **로저 비비에**,
가족 소재의 옐로 칼라 다이아백
2백88만원 **토즈**, 그린 칼라의 가족
톱 핸들 백 3백15만원, 브라운 칼라의
가족 톱 핸들 백 3백15만원 모두 **미우 미우**,
퍼플 칼라의 핀 포인트 2톤 힐 물
1백45만원 **베르사체**.



울 & 새틴 소재의 네이비 컬러 재킷
3백만원대, 울 & 새틴 소재의 네이비 컬러
스카트 1백만원대, 송아지 가죽 소재의
핑크 컬러 퍼스트 미디 백 4백45만원
모두 **발디**, 가족 소재의 골드 블랙
컬러 숄더백 1백85만원 **MCM**, 소가족
소재의 그린 컬러 에이프리트 크로스 보디백
43만원대, 소가족 소재의 마고 숄더
스물백 37만원대 모두 **조이 그라이슨**.





라벤 & 울 소재의 안티시서츠 1백55만원,
 라벤 & 울 소재의 팬츠 2백12만원,
 송이자기족 소재의 다크 그린 컬러 마이크로
 베일백 3백30만원, 송이자기족 소재의
 화이트 컬러 마이크로 베일백 3백90만원,
 송이자기족 소재의 핑크 컬러 마이크로 베일
 백 3백30만원, 송이자기족 소재의 브라운
 컬러 베일백 5백30만원 모두 로모 피아나,
 네이비 컬러 울 가죽 미ջ 로에베.



레드 컬러의 슬랙시트 드레스 8백20만원에
 일백산더 맥퀸,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레드 컬러
 재킷 가격 미ջ,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레드 컬러
 스카트 모두 가격 미ջ 파라기모, 피플 컬러의
 핀 포인트 카튼 울 1백45만원 베르시제,
 송이자기족 소재의 그린 컬러 미니 안티고나
 스트레치 백 2백25만원 자황시, 송이자기족
 소재의 옐로 컬러 세트먼트 라파스 슬더백
 3백30만원, 송이자기족 소재의 세트먼트
 카보송 미니 크로스 백 3백40만원 모두 불가디.

비스코스 소재의 블루 컬러 드레이프드 드레스 가격 미정 **자황시**, 스카이 블루 컬러 스카트 가격 미정 **스포트막스**, 핑크 컬러 메두사 플랫폼 샌들 2백30만원 **베르사체**, 송아지 가죽 소재의 블루 컬러 주얼 호보 미니 백 3백20만원대 **알렉산더 맥퀸**, 송아지 가죽 소재의 다크 그린 컬러 체인 백 4백29만원, 송아지 가죽 소재의 핑크 옐로 컬러 체인 백 3백89만원 모두 **가르띠에**.



버건디 컬러 재킷, 핑크 컬러 돔, 핑크 컬러 롱스카트 모두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블루 컬러 플랫폼 샌들 가격 미정 **에칭치아옌스**, 블루 컬러 문패딩 니파 가죽 백 3백45만원, 옐로 컬러 문패딩 니파 가죽 백 3백45만원 모두 **프르다**, 양가죽 소재의 핑크 컬러 미니 플랫폼 백, 양가죽 소재의 핑크 컬러 체인 클러치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헤어 박희승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Ella Zaka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로아베 02-3479-1785
발렌티노 가부바니, 발렌티노 02-2015-4653
미우 미우 02-541-7443
프르다 02-3218-5331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파라기오 02-3430-7854
불가리 02-2056-0170
구찌 02-3452-1521
로로 피아나 02-546-0615
로지 비비에 02-6905-3370
토즈 02-3438-6008
샤넬 080-805-9628, chanel.com
에칭치아옌스 02-6911-0748
펜디 02-514-0652
조이 그레이슨 080-202-2002
릭 오웬스 02-6905-3578
에르메스 02-542-6622
가르띠에 1877-4326
자황시 02-3479-6137
스포트막스 02-511-3835
베르사체 02-3479-1294
MCM 1600-1976

2023 S/S Essentials

올 상반기, 훌륭한 액세서리가 되어줄 2023 S/S 백 & 슈즈 셀렉션.
photographed by yi joo hyuk



ETRO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르코 드 빈첸초(Marco De Vincenzo)가 야심 차게 디자인한 첫 번째 가죽 핸드백인 벨라 백. 세계를 탐험하는 선원의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 날카롭고 역동적인 실루엣으로 바람을 가르는 듯한 배의 돛을 떠오르게 한다. V자 모양의 클로저와 체인 끝에 달린 펜던트가 특징이며, 동전을 주조하는 기법으로 제작해, 한쪽 면에는 에트로 로고가, 반대 면에는 페가수스 문양이 새겨져 있다. 유연한 카프 스킨 소재로 우는 매인 컬러인 진주야 초콜릿 컬러의 벨라 백, 아래는 아이보리 컬러 버전의 벨라 백 각 3백60만원. 문의 02-3446-1969



다이아몬드고 기하학적인 라인을 디스트레스드 레더에 광택한 이탈리아 가죽 소재 스물다백. 외부와 대비되는 스웨이드로 마감한 마이크로피이버 인감을 낸 내부의 부드러운 감촉이 매력적인 트레비아 크러슈드 레더 컬러의 스물다백 1백85만원 MCM. 문의 1600-1976



샤넬 22 백의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유광 크롬플드 카프 스킨의 유연함과 자연스러움이 돋보이며, 크로스 보드로 착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크리스탈 벨과 골드 메탈 장식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6-9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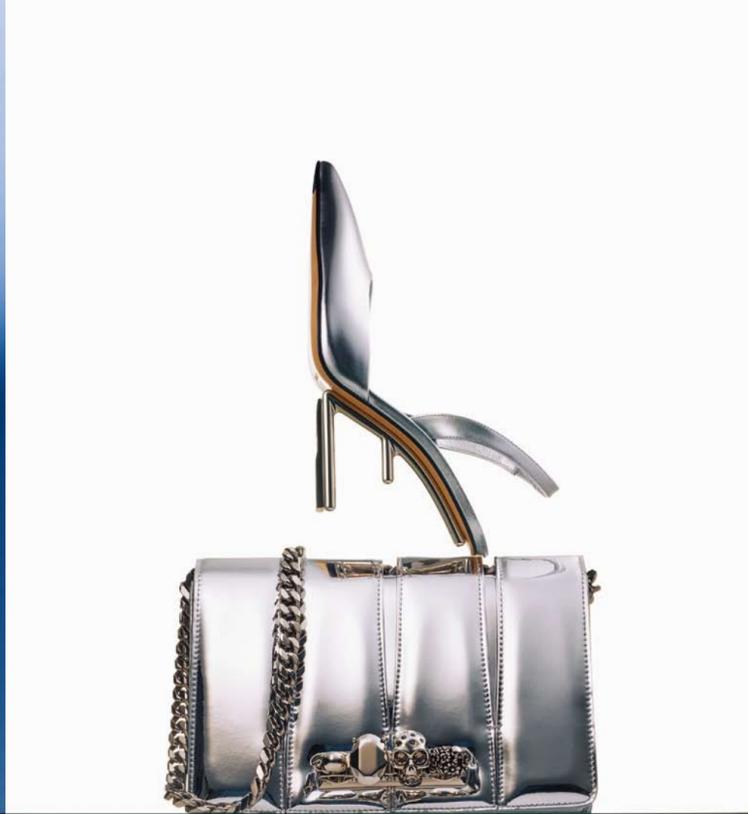
(위)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백인 리키 백의 기법고 유연한 버전으로 기존 리키 백을 제작할 때와 동일한 기술을 적용했다. 풀 그레인 카프 스킨 소재의 외관과 웹 스킨 인감, 물리성 차리한 하드웨어 디테일이 캐주얼한 느낌을 선사한다. 3백만원대 **힐프 로빈 컬렉션**. 문의 02-3467-6660 (이론) 트렌디한 디자인의 바킷 스타일 백으로 이탈리아 소가죽에 우드 브라운 컬러감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틈 핸들 및 크로스 보드로 착용 가능해 실용적이다. 39만원대 **조아리아슨**. 문의 080-202-2002



카프 레더를 인트레치치토 워빙으로 완성해 브랜드 아이코닉티를 보여주는 백으로 슬레이딩 크로스 보드 스트랩을 갖춰 높은 활용도를 자랑한다.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나 매치하기 좋으며, 넉넉한 수납력과 사이즈가 정장인 인디야오 백 6백만원대 **보태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위) 스웨이드 고트 스킨 소재의 발레리나 슈즈로 비비드한 푸르시아 컬러가 룩에 포인트를 준다. 1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아래) 타임리스한 디자인에 우아한 감성을 더한 백으로 더스티 아이보리의 컬러의 박스 송이자가족으로 재치해 고급스러운 무드를 부여한다. 크리스찬 디올 향수 보틀의 실에서 영감을 얻은 생채린 리운드 플랑의 엔티크한 골드 파니시 메탈 CD 잠금장치가 특징인 30 공터인 에비뉴 백 5백만원대 **디올**, 문의 02-3280-0104



(위) 브랜드 상징인 F 모티브를 힐 디자인에 담아 독특함을 더했다. 송이자가족에 테이퍼드 토와 앵글 스트랩 디테일을 가미한 펜디 퍼스트 솔링백 2백만원대 **펜디**, 문의 02-544-1925 (아래) 타임리스한 실루엣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보리 디자인의 솔라시 포인트가 심플하고 날렵하다. 아이코닉한 나뭇 가지의 주얼 사슬을 독창적이고 정교하게 재해석해 강인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준다. 메릴릭 실버 컬러 솔라시 백 4백만원대 **일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맥시밀리언 데이비스가 아이키트 중 고유의 DNA를 재해석해 완성한 백. 대조적인 컬러의 캔버스 셀이 카이아웃 라인 사이로 보이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 컬러의 에비뉴 백 2백85만원 **파라카모**, 문의 02-3430-7854 (아래) 아이코닉한 LV 아이카이트 스퀘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부드러운 램 스킨과 스포티한 예시 소재의 인사를 조합하고 상단의 대조적인 물결 라인과 부드러운 고무 감성으로 완성한 키튼 힐 아이카이트 솔링백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위) 에베럴드 그린 컬러의 카프 레더에 에미시스트 퍼플 컬러의 그로그링 인감을 매치해 컬러풀한 개성을 부여했다. 그린 밀리키이트로 장식한 벨 눈과 블랙 및 화이트 아이카이트 컬러의 에-퀘일 비늘로 완성한 라이트 골드 도금의 황동 소재 벨 머리 잠금장치가 포인트인 세르펜티 포에버 백 4백10만원 **볼가리**, 문의 02-2056-0170 (아래) 펜디 모양을 기하학적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플라툰 파니시 잠금장치가 돋보이는 아이코닉한 체인 백, 패일 옐로 송이자가족에 인감을 블랙 양가죽으로 마무리했다. 솔더와 크로스로 착용 가능한 펜디 드 카르피에 체인 백 3백89만원 **까르피에**, 문의 1877-4326

HOGAN

(위) 농구화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브랜드의 스타일과 레트로한 감성을 조화롭게 표현한 스니커즈. 볼드한 라인으로 도드라진서도 스포티한 무드를 연출하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카프 레더 소재에 소프트한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 인서트 디테일의 H630 비스켓 스니커즈 66만원대, (아래) 새롭게 소개되는 바게트 세이프의 백으로 맥시한 H 메탈 버클이 포인트를 더하는 H-백. 별도 판매되는 특별한 디자인의 레더 스트랩과 매치하면 더욱 캐주얼하면서도 영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백 86만5천원, 스트랩 26만5천원. 문의 02-3479-1593



(위)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맥시밀리언 데이비스가 아이키트 중 고유의 DNA를 재해석해 완성한 백. 대조적인 컬러의 캔버스 셀이 카이아웃 라인 사이로 보이며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아이보리 컬러의 에비뉴 백 2백85만원 **파라카모**, 문의 02-3430-7854 (아래) 아이코닉한 LV 아이카이트 스퀘어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으로 부드러운 램 스킨과 스포티한 예시 소재의 인사를 조합하고 상단의 대조적인 물결 라인과 부드러운 고무 감성으로 완성한 키튼 힐 아이카이트 솔링백 4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Viva, vivid!

액세서리 하나만 잘 고르면 올해의 컬러 비바 마젠타를 세련되게 매지할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 비바 마젠타 컬러를 입은 인조 퍼 소재에 귀여운 곰돌이 디자인이 포인트를 주는 비제트 배어 파우치 치 45만원 MCM. 문의 1600-1976. 비바드한 컬러감으로 맛있는 헤어에 포인트가 되어 줄 솔리드 헤어 스크런치 8만원 말바리. 문의 02-2018-1439. 매종의 상징인 스타드를 극대화 표현한 시그니처 디자인을 나뭇가지로 완성한 원 스타드 솔다백 4백21만원 발렌타노 가리바니. 문의 02-3479-1799. 폴리싱 카프 스키에 골드 도금 메탈 로고 버클을 더한 DG 로고 폴리싱 카프 스킨 벨트 70만원대 폴케 안가바니. 문의 02-3442-6888. 부드러운 램 스킨과 카프 스킨을 적절히 믹스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며, 록에 개성을 더해줄 메리제인 스타일의 슈즈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60-805-9628. 큐브 형태와 정교한 커빙 기술이 7배확장된 라운딩을 선사하며, 새틴 카프 스킨 소재에 유광 히드웨어와 자카드 스트랩, 포셀린 비니 참으로 완성한 스몰 퍼플 에지 백 라비 레드 4백90만원 로아베. 문의 02-3479-1785. 브랜드 시그니처인 포스텐 모티브의 브레이슬릿으로 옐로 골드 버클과 로즈 우드 텍스처를 케어블로 이펙트 포스텐 브레이슬릿 라지 모델 4백35만원 프레드. 문의 070-4732-0479 에디터 성장민

장영민

Art of Science

과학, 예술, 사랑의 가치에 기반한 '아트 오브 사이언스 스킨케어(Art of Science Skincare)'를 내세우는 일본 뷰티 브랜드 폴라(POLA)를 소개한다.

2023년 5월 일본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 폴라(POLA)가 국내에 공식 론칭한다. 1929년 창립해 곧 1백 주년을 맞는 폴라는 일본 3대 뷰티 브랜드로서 우수한 명성과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과학, 예술, 사랑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아트 오브 사이언스 스킨케어'라는 모든 아래 피부에 힘을 부여하는 제품의 기능뿐 아니라 조형 작품에 가까운 패키지가 지, 화장품 그 이상의 특별함이 가득하다.

Art of Science Skincare

폴라는 일관성쌍둥이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성장하는 것에 착안해 후천적으로 피부 체질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왔다. 이를 통해 피부에 힘을 부여하는 '바이오 액티브' 이론에 기반한 비에이(B.A) 라인을 완성했는데, 이는 폴라의 슬로건인 과학을 통해 피부를 예술로 승화하는 '아트 오브 사이언스 스킨케어'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강인한 생명력을 품은 줄맨드라미로사 성분과 에피 게놈 테크놀로지의 시너지 효과로 마치 스위치를 켜 듯 피부의 잠재된 아름다움을 깨워준다. 이는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즈(The Best Cosmetics Awards)를 비롯한 무수한 수상 이력으로 입증받았다. 폴라의 제품은 과학에 근거한 뛰어난 제품력뿐 아니라 탁월한 미학적 면모 또한 갖추고 있다. 시프레 플로럴 노트의 시그니처 향은 단계별로 덧바를수록 더 깊고 풍부해지면서 감각적으로도 훌륭한 리추얼을 선사하며, 뷰티 케어를 즐겨온 시간으로 만들어준다. 세계적인 권위를 지닌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수상한 패키지 역시 눈여겨볼 만한 부분 중 하나다. 아름다움의 무한한 가능성을 형성화한 곡선미와 건축적인 느낌의 조형미가 돋보이는 패키지 디자인은 화장대 위 멋진 오브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기능과 미학 등 프레스티지적 면모를 갖춘 뷰티 브랜드 폴라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Science, Art, Love

과학적 탐구와 도전 정신은 폴라를 혁신적인 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한 원동력이다. 자체 보유 리서치 센터에서 0.01mm 정밀도의 피부 분석 기술을 통해 25년 이상 2천만 명의 피부 데이터를 축적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과학 연구를 통해 독보적인 제품들을 선보인다. 예술에 대한 존중은 폴라의 높은 미의식의 원천이다. 1만여 점의 아트피스를 소장한 폴라 뮤지엄을 보유하고 있으며, 1976년부터 여성과 화장품에 대한 문화적 연구를 계속해온 '폴라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통해 피부뿐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랑은 폴라를 탄생시킨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화학자였던 창립자 스즈키 시노부(Shinobu Suzuki)가 아내의 거친 손을 위해 직접 개발한 핸드크림에서 시작된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이 정체성은 1백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고객은 물론 사회와 지구 사랑에 앞장서고자 하는 브랜드 비전인 'We Care More'로 이어지고 있다.

Face the Beauty

폴라를 대표하는 비에이(B.A) 라인은 피부의 보다 더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피부 체질을 바꿈으로써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비에이 라인에는 클렌징 크림부터 워시, 밀크, 로션, 크림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스킨케어 시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클렌징 크림과 워시는 다음 단계 화장품의 흡수력을 높여주며 로션, 밀크, 크림은 피부 밸런스를 바로잡아 건강하게 가꿔준다. 폴라는 오는 5월 롯데백화점 본점에 국내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할 예정이다. 매장 오픈을 기념해 5월 한 달 동안 모든 방문 고객에게 폴라의 대표 제품인 비에이 5종 사세를 증정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 중이다. 그 전까지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월드타워점/제주점, 신라면세점 서울점/제주점, 신라이이프면세점 용산점,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등 주요 면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688-9138

에디터 성장민



editor's Pick

편집부가 엄선한 13개의 뷰티템으로
최적의 피부 솔루션을 제시한다.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나스 에어 메트 빌 컬러 레퍼쉬드 로맨틱한 무드의 은은한 핑크 컬러로 피부 톤을 한층 생기 있게 연출해주는 스프링 메이크업에 제작된 아이섀도, 부드럽고 가벼운 메트 포뮬러로 크리미하게 발림면서 입술 위에 볼러 처한 듯 컬러가 가라앉는 느낌. 7.5ml 4만 원대.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윤자경*

로아비 프라그런스 탱크 워크 리브 헬스장 로কে 들어갈 때도 쓰고 싶었다니 품목만 넣을 필요 없이 문을 열 때마다 상쾌한 향이 퍼져 나가 기분 전환까지 되었다. 무화과와 코코넛의 달콤한 향과 은은한 자스민, 바이올렛 리프 향이 어우러져 우아한 느낌을 준다. 9g x 3개 3만 9천 원. 문의 1644-4430. *_by 에디터 윤자경*

다미르 로 파피에 오드 투왈렛 브랜드를 대표할 또 하나의 향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해 본다. 종이 위에 떨어뜨린 잉크 한 방울이 퍼져 나가는 장면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향으로 매우 사생활이면서도 강렬한 느낌을 준다. 종이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향에 잉크의 강렬함을 미묘하게 표현해 매우 여성스러우면서도 유려한 매력력을 뽐낸다. 볼나 들이 플라스카와 매치하면 참 아름답다. 100ml 23만 3천 원.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보아레 로브 크림 건조함의 절정을 이루었던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피부는 아직도 사막이다. 이왕에 촉촉하게 비르고 나갔던 오후가 되면 가습기는 피부 상태에 지쳐갈 때쯤 만난 크림. 산뜻함을 비롯한 여러 꽃과 뿌리 추출물을 담아 수분 및 영양 공급 효과가 확실하다. 오일 한 방울과 섞어 비어든 틈도 때까지 안는다. 50ml 25만 5천 원. 문의 02-310-5025. *_by 에디터 정미윤*

랑돔 클라리피크 프로 솔루션 눈에 띄는 기미뿐 아니라 피부 표면의 멜라닌 수치를 낮추기 개선해주는 스마트한 아미노산은 소문답게 부드러운 포뮬러가 피부 속 깊이 수분감을 채워주면서 톤을 한층 밝게 해주는 기미이다. PHA 성분이 부드럽게 케어하는 것도 특징. 50ml 19만 5천 원. 문의 080-022-3332. *_by 에디터 윤자경*

VDL 엑스퍼트 컬러 피아미어 포 아이즈 오리지널 평소 스킨케어에 프라이머로 유명한 VDL의 이 제품을 꾸준히 애용하면서 눈이 작아 아쉬웠는데, 잠도 사이드로 출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으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좋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메이크업의 밀착력이 지속되며 쌍꺼풀 라인에 끼는 현상이 적을 편이다. 13g 2만 2천 원. 문의 080-023-7007.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오리진스 진저 수플레* 힐 바디크림 오리진스의 베스트 제품 중 하나인 진저 수플레* 힐 바디크림. 금액은 동일인데 200ml에서 350ml로 증량해 출시했다. 5인 가족인 우리에게 인강홍, 올리브, 포도씨 진저 성분을 포함한 피부가 촉촉하고 쫄깃해준다. 게다가 진저 향의 에센셜 오일이 물과 미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350ml 5만 6천 원대. 문의 02-3440-2783. *_by 에디터 정미윤*

조자랑 로브 크림 볼륨 탄력 있고 윤기 나는 모발은 두피 모공 케어부터 시작된다. 작은 트라이 사용으로 무색해진 모발과 예민해진 두피에 이 제품이 해결책이 되어 주었다. 해초, 제라늄, 로즈메리, 백민향, 레몬까지 총 여섯 가지 추출물이 들어 있어 두피에 수분과 영양을 채워 늘어난 모공이 줄어드는 느낌. 백서 사용 시 두피 마시기도 같이 해주니 전보다 두피에 탄력이 생긴 것 같다. 180ml 16만 9천 원. 문의 02-556-0563.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겔랑 오르트 앙레미엘 마이로 리프트 컨센트레이트 세럼 따뜻한 날씨와 봄철에 피부 탄력과 생기가 점차 줄어드는 게 보이는 요즘,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고 영양을 채워주는 세럼이다. 자연의 생약력을 지닌 오르트 추출물이 들어 있어 피부에 생기를 가득 채워준다. 밤에 자기 전 리프트에 필요한 눈과 입가 및 팔자 주름에 발라주면 다음 날 아침 숙부터 차오르는 탄력 있는 피부를 느낄 수 있다. 50ml 96만 원대. 문의 080-343-9600.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파티라피 레퍼쉬드 아로마 오일 파스플 클레어 봄이 되면 날씨 따라 피부도 함께 건조해져 스킨케어 시 오일을 다량하게 활용하는 편이다. 얼굴에 전체적으로 오일을 얹게 바른 후 팔사를 이용해 마사할 때 끈적임 없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좋았다. 페퍼민트·오렌지·자몽·레몬그라스 향이 어우러져 산뜻하면서 싱그러움에 남는 잔향까지 만족스러웠다. 30ml 15만 원. 문의 1566-5830. *_by 인턴 에디터 신정민*

샤넬 레 가브리엘 오일 68 알레시 샤펀 퍼플, 메트 허우더 핑크, 메트 브라운 모브, 그리고 펄 파우더 옐로까지 네 가지 컬러를 담았다. 데일리 아이 메이크업으로 무난한 컬러로 은은하게 발라주며 여러 번 덧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리마이트 에디션이니 사투를 걸. 2g 9만 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_by 에디터 정미윤*

오희 미라를 톤업 데일리 선 유연하다. 시공간과 발발성에서 독특한 느낌을 준 지외선 차단제다. 젤 제형으로 백탁이나 밀림 없이 세밀하게 피부에 가깝고 빠르게 스며드는 것이 가장 큰 장점. 끈적임이나 백탁을 싫어하는 남성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좋을 듯하다. 바를 때도 수분감과 청량감이 느껴져 화장하기 전 수분 베이스 역할까지 독특하게 해준다. 50ml 4만 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성정민*

포아인 안 에그리크 커버 쿠션 쿠션임에도 마치 파운데이션 텍트를 바르는 듯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적당량을 찍어 얼굴에 묻자마자 비문 후 톱톡 눌러주면 각종 잡티나 붉은 기운 들뜸 없이 자연스럽게 커버해준다. 같은 착각이 매끄러우며 러디하며, 속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장점. 비건 제품인 것과 예쁜 조아들 모양 손가락 같은 패키지도 마음에 든다. 12g 3만 5천 원. 문의 080-023-7007. *_by 에디터 성정민*



SHOWROOM

말바리 타이니 소프트 백 소프트 컬렉션을 통해 쿠션처럼 폭신한 백을 선보이는 말바리에서 신뜻한 컬러감의 타이니 소프트 백을 소개한다. 소프트 컬렉션 중 가장 작은 백으로 아크릴 그린·룬 그린·린카스터 레드·블랙·살바, 총 5가지 다채로운 컬러로 선보인다. 탈착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스타일링에 따라 토트백뿐 아니라 크로스 백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따뜻한 날씨에 포인트를 줄 백이 고민이라면 타이니 소프트 백을 추천한다. 문의 02-2018-1439

구찌 뉴진스 하와리 할개한 새로운 구찌 홀스빗 1965 광고 캠페인 공개 구찌의 상징적인 핸드백, 구찌 홀스빗 1965의 새로운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 구찌 글로벌 앰배서더이자 K-팝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 상아송라이터 겸 배우 할리 베일리, 그리고 떠오르는 배우 줄리아 가가까지 3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그들의 스타일로 선보이는 구찌 홀스빗 1965는 구찌 공식 온라인 스토어(gucci.com) 및 SNS 계정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52-1521



발렌티노 가라바니 르 트루아지엠 미니 토트백 출시 발렌티노가 2023 S/S 언박싱 발렌티노 컬렉션에서 르 트루아지엠 토트백을 미니 사이즈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기존 V 로 및 트릴 이코노그라프 패턴을 자라드와 안드로미다리로 재해석해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톱 오픈 형태로 실용성을 더한 이번 신제품은 블랙과 레드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2015-4655

키튼 국내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키튼이 지난 3월 29일 청담동에 국내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이번 신규 매장은 아웃도어 및 남성 캐주얼 아이템과 키튼의 신소재 라인, KNT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1층과 고객 맞춤 주문 작업이 이뤄지는 프라이빗한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오픈을 기념해 국내 유명 셀럽과 키튼 브랜드 친밀 일가가 오픈 행사에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남겼다. 문의 02-547-5444

쇼메 비마리는 컬렉션 역사 깊은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쇼메가 비마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왕실을 상징하는 꽃잎에 영감을 얻어 탄생한 이번 컬렉션은 유가형 발진 모양의 기하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다. 브르셀로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과 클래식한 밴드 구조상하며, 로즈·화이트·옐로 골드 소재의 링, 브레이슬릿, 핀셋, 이어링으로 선풍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442-3359



포말리도 누도 컬렉션 다채로운 젤스톤의 조합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누도 컬렉션. 이 컬렉션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그린·퍼플·블루 컬러를 사용해 새로운 3'지 스톤의 링과 이어링을 선보였다. 특히 여러 개의 링을 레이어링해서 착용하면 오묘



한 컬러의 젤스톤이 어우러져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링은 프와와 클래식 사이즈로 선보이며, 이어링은 클래식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143-9486

리노 캠프 쿡 하이테크 세라믹 스몰렛 시계 소재의 선구자라 불리는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 리노에서 가장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하는 플라스마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의 새로운 캠프 쿡을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플라스마 그래픽과 로즈 골드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더 넓은 디자인 영역을 통해 다양한 부품을 선정하게 볼 수 있다. 아울러 라도 오토매틱 칼리버 808 스몰렛은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30bar(300m) 방수 및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문의 02-3149-9555



실론 4월 실론 제모기 합인 프로모션 진행 따뜻한 날씨로 노출이 늘어난 요즘, 제모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실론에서 4월 한 달 동안 실론의 제모기(인피니티, 플래시앤드 프로, 주얼)를 30%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실론 제모기는 FDA, CE, 한국 식약처 등에서 안전성 및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반영구 제모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실론 공식 홈페이지(silkn.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80-246-1234

인피니티 비엔비이탈리아 리뉴얼 오픈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해 온 인피니티가 청담동 소품에 비엔비이탈리아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중심으로 비엔비이탈리아의 다채로운 기구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간을 연출했다. 아울러 르방블레 탄생 50주년을 기념해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티와 협업해 새롭게 선보이는 르방블레 소파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47-6000





Creating infinity

Yayoi Kusama

LOUIS VUITTON